

## 52. 순결한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나를 볼것이야! 거룩함은 대가를 가지고 있어...

2015.04.19 - 예수님께서 클레어 자매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 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세상과 타협하였는지를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세상이 너무 타락하여서 그들의 양심이 정말 제대로 형성되어본적이 없어. 그 결과로 그들은 옳고 그름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많아.

그들은 어떤 것들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지만,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들은 알지 못해. 너도 가끔 이것에 빠져. 나의 생각은 세상의 생각과 너무 달라서 사람의 눈에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은 어려워.

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말해., '너희들의 최선을 다해라 그러면 나의 영이 그 나머지를 할 거야.' 나를 슬프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 지구에서 드러낼 시간은 없을 것이지만 천국에서 시간이 지나면 너희들 모두는 너희들을 더럽히는 죄악된 것들을 더 완전히 이해하게 될 거야. 그때까지 너희들의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내가 할 거야. 진지하게 말해, 어떠한 것들이 나를 불쾌하게 하는지에 대한 너희들의 이해부족을 나는 이해해. 그러한 이유로 나는 너희들에게 더 관대하고 옛날과 같이 온전한 순결을 요구하지 않아.

그래, 수영복은 여전히 나를 수치스럽게해. 수영복은 육체의 너무 많은 부분을 노출시키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일반적인 문화야. 너가 자녀들을 수영장에 데려갔을 때 반바지와 티셔츠로 몸을 가리라고 고집하던것을 기억나. 하지만 너의 자녀들이 선정적인 옷을 입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근처에 있었다는 것이 나에게서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어. 클레어, 나는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야. 나는 천국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너희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허용하였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고, 나는 나의 모든 신부들이 나를 슬프게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기를 바래. 나는 너희들 모두가 눈과 마음과 육체의 순결을 실천하기를 바래. 너희들의 눈이 방황하게 하지 말아라. 나를 불쾌하게 하는 어떤 것을 두번 보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 너희들이 보는 것을 내가 본다는 것을 알아? 오, 육욕적인 본성의 것들을 내가 보지 않게 하도록 해줘.

너희들 중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의 선정적인 문화 때문에 육신의 죄로 걸려넘어졌어. 그것은 모두 사탄의 계획이었고 이것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하지만 이제 나의 신부들인 너희들은 우리의 결혼식 날이 다가옴에따라 육체의 것들에 빠지지말고 즐기지 말라고 간청해.. 그것은 나에게 재미가 없고 아프게만해. 노래도, 책도, 사진도.

(클레어) 주님, 적들이 전에 없었던 더러움을 퍼뜨렸다는 것을 알아요. 그 더러움들은 저희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채기도 전에 저희들의 마음에 스며들어요.

(예수님) 만약 너희들이 이것들을 너희들의 마음으로 인식하고 있다면 정죄할 것이 없어. 정죄할것은 너희들이 이것들 안에 살면서 자기자신을 더럽힐때야. 다시한번 말하지만 순결한 사람들은 축복받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야. 이것은 나와 의사소통을 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해. 나는 너희들이 그 공격들을 마음에서 몰아내고 순결하게 남아있기를 바래. 만약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은 훨씬 더 악함으로 자라나고 진화하기 시작해.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알기도 전에 너희들은 타협을하고 너희들의 자제력의 한계를 넘어서면 너무 늦어버리게 되고 너희들은 죄에 빠지게 되.

나는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말해. 부도덕, 불결함, 음란함, 도덕적 절제의 부족, 특히 성행위와 자극적인 옷을 입는 것을 나병환자처럼 멀리해라.

거룩함을 위해서, 나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치러야할 대가가 있어. 너희들이 영화와 TV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 보기를 거부한다면 친척들로부터 더 많은 경멸과 조소를 받게 될 거야. 더러운 것들에서 너희들의 눈을 돌리면 너희들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죄의식을 가지게하는 요소가 생기고 그들은 그것에 분개해. 하지만 너희들은 너희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도덕적으로 불결함을 거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높은 행동의 기준을 세워.

그리고 너희들 중에 이미 더러움이나 음행에 빠진 사람들에게 말해. 회개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그 때에 나를 불러서 너희들을 강화시킬 수 있게 해라. 그것들에 기꺼이 눈을 돌리는 사람들은 약하고 매번 볼 기회를 거부하지만 자신이 여전히 압도당하고 있는것을 발견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죄가 있어. 나는 너희들을 비난하지 않지만 악마들은 그래. 그들은 유혹을 하고 너희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에 넘어졌을 때 그들은 비난을 퍼부으며 너희들은 지옥으로 향하는 그들의 것이라고 주장해.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하고 판단하는 너희들은 자제력에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될 거야. 나는 너희들이 너희들의 이웃에 더 연민을 가지도록 너희들이 실패하는 것을 허용할 거야.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가지기를 요청해.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베풀어질 거야. 그리고 율법주의적이고, 요구가 많으며,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연민과 겸손을 배우는 것이 필요해. 그래서 나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게 하도록 이 굴욕적인 습관을 허용해. 나는 이러한 것들을 일으키지 않았어. 나는 악마들이 영혼위로 뛰어오르려고 하는 것이 보이고, 만약 그 영혼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하고

비판적이었다면 나는 그 영혼을 구하러 가지 않아.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비하할 수록 너희들이 넘어질 것을 더 많이 예상할 수 있어.

이제 그 영혼이 충분히 경험하였고 나에게 도움을 청하기위해 부르짖으면, 그들 자신이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 있고, 더 낫지도 않고, 더 똑똑하지도 않고, 더 거룩하지도 않고, 더 유능하지도 않지만, 구원이 필요하고, 자비가 필요하고, 연민이 필요한 나머지 인류처럼 가엾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나는 그들에게 그들의 약함을 상기시켜줘. 그리고 그 오만함과 자만함을 판단적인 영혼이 이해하기 시작하면 내가 개입하여 그 영혼을 도와줘.

(클레어) 주님, 저는 음식에 대해서 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제가 주님의 승인과 맞지 않는 작은 것들을 집에 가져갈때마다 저는 후회를 하고 주님께서는 겸손함의 레마를 주셔요.

(예수님) 그래 나는 자만한 사람들을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실패하도록 내버려두어 겸손하게 만들어. 왜냐하면 자만함은 사탄에의해 일어나는 원죄이기 때문이야. 자만함은 죄의 조상이고 다른 어떤 죄들보다도 나는 자만함을 싫어해. 자만함은 나의 몸의 생명을 파괴하고 나의 선물들을 박탈하는 판단과 험담을 낳아. 이것은 결혼생활을 파괴하고 부모들의 지도가 없는 자녀들을 남겨놔. 자만함보다 더 파괴적인 것은 없어. 자만함은 다른 모든 죄들, 탐욕, 정욕 등 수없이 많은 죄들의 뒤에 있어.

그래서 깊은 수준에서 나를 알고 싶어하는 영혼에게서 내가 자만함을 본다면, 그 영혼의 생명이 회복되고 쉽게 흠쳐가지 못하도록 그 요새를 무너뜨리기 위해 나는 즉시 개입해. 자만함이 있을때 너희들은 방어하지 않는 도시이고, 적들이 곧장 들어와 너희들의 모든 선물들을 빼앗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너희들이 사역자일때 자만함에 빠져있다면, 너희들이 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의 말을 듣고 너희들을 믿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넘어지게되. 사탄은 숨어서 사역자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들이 판단하게 만들게 만들어 그들을 박탈시켜.

그래서 나는 너희들 모두에게 이 거룩함의 비밀들을 말해줘. 나를 기쁘게하는 비밀들 그리고 너희들의 발 앞에 놓인 울무들을 경고해. 승리 직후에 너희들이 기분이 좋을 때, 그때가 너희들의 가장 취약한때이고, 공격당할 것을 예상하고,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여 자기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두도록 만들게 하는 것을 예상해라.

이 누룩이 너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느끼기시작하면 즉시 회개하고 너희들의 영혼에 용서와 자비를 간구해라. 보통 너희들이 그것을 느끼면 이미 늦은 것이고, 너희들은 이미 그곳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야. 하지만 만약 너희들이 아주 매우 조심스럽다면 너희들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 무엇보다도 나는 너희들이 이웃들의 미덕을 알고 있으면서 너희들이 그 미덕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 자책하기를 원해.

나는 너희들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서 너희들 자신의 눈에 남들보다 너희들이 더 낮아보이기를 바래. 이곳만이 너희들에게 안전한 곳이야.. 겸손함. 그리고 만약 너희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정말 많은 미덕들을 볼 수 있을 것이고, 너희들은 감히 누구에게도 손가락질을 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들의 도시를 안전하고 잘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다른 사람들의 미덕에 대한 습관적인 인식을 가지게 될 거야.

자 이제 너희들은 이해가 되었을 거야. 너희들이 왜 비하하는 죄에 빠지는지. 왜 너희들이 실패하는지. 나는 자만한 사람들을 대적하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는 너희들의 창조주만이 가질 수 있는 부드러움으로 너희 모두를 사랑해. 나는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나아갈 때 너희자신을 극복하고 나의 겸손함으로 걸을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로 너희들을 축복해.

나는 신이었지만 신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았고, 너희들의 창조주로서의 나의 특권을 버리고, 내 자신을 비우고, 사람의 형상으로, 낮은 종의 자세로 너희들에게 갔어. 이것이 나의 신부들의 특성이니 가서 그렇게 하여라.